

## 出生에 관한 漢字 考

우 온 식\*

### < 目 次 >

- |                   |         |
|-------------------|---------|
| I. 序論             | 2. 出産   |
| II. 出生에 관한 漢字의 字源 | 3. 養育   |
| 1. 胎妊(태임)         | III. 結論 |

### <국문 초록>

본고는 탄생과 관련된 한자의 자원을 분석한 논문이다.

출생이란 태아가 모체로부터 완전히 나와 독립 생명체를 이루는 현상이다. 인간의 출생은 종족을 보존하고, 그 가업을 계승하고 가문을 잇는 중대한 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을 자녀 출산의 수단으로 여겼던 까닭에 혼인한 여성은 아이를 낳는 일을 가장 큰 의무인 동시에 소망으로 생각하였다. 이것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온 문중이 바라는 일이기도 하였다.

대중사에 번거로운 예법을 많이 지켰던 전통사회에서는 入胎 전후에 산모를 보호하는 법과 해산할 때 집안사람들이 함께 産兒의 건강을 도모했다. 또한 아이가 출생하면 대문에 금줄을 쳐서 喪人과 잡인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막고 집안사람들조차 부정할 곳의 출입을 삼갈 정도로 ‘出生禮’를 철저히 지켰다.

최초의 인류가 탄생한 이후 현생인류는 끊임없이 진화하여 고도의 정신 활동을 하게 되었다. 인간은 생존을 위한 집단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레 하나의 사회를 형성해 가면서 서로의 의사소통을 위해 독창적인 언어를 구현 발전시키기

\* 노릇돌평생교육원 대표 / [kkongcho2003@hanmail.net](mailto:kkongcho2003@hanmail.net)

에 이르렀다. 출생과 관련된 문자 또한 인간은 소통과 기록의 필요를 위한 것이었을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수천 년간 전해져 내려오는 한자의 자원분석을 통하여 고대의 출생에 관한 관습과 관념 등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주제어】 임신, 출생, 양육, 출산의례, 금줄

## I. 序論

생명의 탄생은 동·식물을 막론하여 신비하고 위대한 일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전부터 아이를 낳은 집에 금줄<sup>1)</sup>을 거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러한 풍습은 잡인의 출입을 금하여 부정을 막기 위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출산에 앞서 자식을 바라는 데서 생긴 祈子 풍속이 있는데, 아이를 낳기 위해 치성을 드리는 행위를 말한다.<sup>2)</sup> 또 잉태를 하게 되면, 임신부가 태아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 말과 행동,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고 음식을 가려 먹는 등 禁忌를 지키며 조심한다.

아이가 태어나면 최소 세이레 동안은 집안에 일반인들의 출입을 금한다. 가족들도 초상집 같은 곳은 곳에 가지 않으며, 산짐승이나 들짐승을 잡지 않는 등 出産 의례에는 한 생명에 대한 소중함이 담겨 있다.<sup>3)</sup>

1) 금줄 : 금줄은 不淨을 막기 위하여 문이나 길 어귀에 건너질러 매거나 神聖한 대상물에 매는 새끼줄이다. 아기를 낳으면 대문에 금줄을 쳐서 外人의 출입을 금한다. ‘인줄’이라고도 한다. 뱃짚 두 가닥을 성인남자의 새끼손가락 정도의 굵기로 원 새끼줄을 꼬아서 여기에 다른 물건을 첨가시켜서 만든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encykorea.aks.ac.kr/>

2) 돌하르방의 코를 굽어 물에 타 마신다든가 커다란 바위(祈子石)에 배를 대고 문지르기도 하고, 장광(장독대)에 물 떠놓고 치성을 드린다든지 남의 집 금줄을 태운 재를 마시는 등 지역마다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풍속이 있다.

3) 오늘날에는 백일, 돌 등을 중심으로 지켜지고 있을 뿐 민간 신앙과 관련된 출산 의례는 잘 지켜지지 않는다. 과거의 전통적인 가정 출산과는 달리 요즘은 병원에

殷나라의 갑골문에도 得男이 본인의 생존과 직결된 중대사였던 3천 년 전 왕비들의 운명을 엿볼 수 있다.<sup>4)</sup> 다음의 갑골문은 은나라 왕비 婦好의 잉태 및 출산에 관한 내용이다.

부호에게 아이가 없을까요?(婦好母(毋)其出(有)子.)

부호가 아이를 낳으려 하는데 아들이 아닐까요?(好冥(媿)不其(嘉)<sup>5)</sup>)

위의 갑골문에는 왕비의 잉태를 바라고 또 아들의 출산을 염원하는 뜻이 담겨있다. 비록 3천 여 전의 일이라 해도 지금의 바람과 다름이 없다는 것 또한 알 수 있다.

출생이나 양육을 뜻하는 한자에 비해 잉태에 관한 한자로 身, 孕, 胎, 包, 胞, 胚 등 여러 글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고대인들이 그 무엇보다도 잉태를 중요시하고 복중의 아이를 소중히 했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母는 가슴을 강조한 여성의 모습을 상형한 글자이다. 여성의 가슴을 강조했다는 것은 아이에게 젖을 먹여 양육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으로써 ‘어머니’라는 뜻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한자에 나타난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고대인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이고 소중하게 여겼던 일들까지도 알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은 서로간의 의사소통과 기록을 위해 문자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따라서 고대의 문자에는 당시의 풍습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다. 특히 한자는 표의문자이기 때문에 造字의 본의 분석은 당시의 풍습을 엿볼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 된다.

본고에서는 출생과 관련된 한자를 선별하여 태임(胎妊), 출산(出產), 양

---

서 출산을 하고 산후 조리원에 들어가 일정 기간 동안 머무르며 몸조리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집에서 금줄을 친다든지 삼신상을 차린다든지 할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4) 梁東淑, 『甲骨文字典을 겸한 甲骨文解讀』, 서예문인화, 2004, p.899.

5) 梁東淑, 『甲骨文字典을 겸한 甲骨文解讀』, 서예문인화, 2004, p.901, p.907.

육(養育)의 순으로 구분하여 한자의 字源을 분석을 통해 한자에 표현된 의미를 알아보고자 한다.

## Ⅱ. 出生에 관한 漢字의 字源

이 章에서는 出生에 관한 漢字의 字源을 分析하고, 字形演變科程을 통해 한자의 구조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본고는 ‘胎妊, 誕生, 養育’의 순으로 서술하면서 각 항에 해당하는 한자의 자원분석을 통해서는 본의 및 인신의 의미를 알아보고, 한자의 구조와 변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갑골문부터 해서 까지 자형의 연변과정을 분석하겠다. 먼저 ‘胎妊’과 유관한 한자로 身, 孕, 胎, 始, 包, 胞, 胚 등의 글자를 알아보고, ‘誕生’에 관한 한자로는 産, 了, 娩(娩)에 대해 분석하겠다. 마지막으로 ‘養育’에 관한 한자인 育과 養에 대해 서술하겠다.

### 1. 胎妊(태임)

胎妊은 생명의 시작이므로 산모나 태아를 위해 임신부의 말씨나 몸가짐은 물론이고 음식을 가리며, 살생을 금지하는 등 집안 안팎의 모든 대소사를 신중히 행하고 조심하였다. 다음은 ‘胎妊’에 관한 한자의 자원분석과 자형연변이다.

#### 1) 身(몸 신)

##### (1) 身의 字源

許慎은 身의 字源에 대해 『說文解字·身部』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身은 몸이다. 사람의 몸을 본뜬 것이다. 人이 뜻을 나타내고 厂가 소리를 나

타낸다. 身部에 속하는 글자는 모두 身의 의미를 따른다. 반절은 失人切(신)이다(身, 躬也, 象人之身, 從人, 尸聲, 凡身之屬皆從身 失人切).<sup>6)</sup>

허신은 身에 대해 ‘사람의 몸을 상형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단옥재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身은 躬이다. 『呂部』에서 ‘躬은 몸이다.’라고 하였다. 두 글자는 서로 바꾸어 뜻을 풀이한다. 躬이 반드시 呂部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躬은 몸을 구부릴 때 척추가 몸의 기둥(主)이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대서본』에서 ‘몸의 상형이다. 人으로 구성되고 尸가 소리를 나타낸다.’라고 하였다. 내 생각에 이 말은 앞뒤의 조리를 잃은 듯하다. 尸는 고음 16부에 있다. 성부가 아니다. 지금 『韻會』에서 근거한 『소서본』에 의해서 바로 잡는다. 『韻會』에 ‘从人’ 위에 ‘衆人 身’ 세 글자가 있는데 역시 잘못이다. 躬의 주문은 躬이다. 그러므로 생략된 자형이 성부라고 한 것이다. 반절은 失人切(신)이다.(身, 躬也. 呂部曰. 躬, 身也. 二字爲互訓. 躬必入呂部者. 躬謂身之樞. 主於脊骨也. 大徐作象人之身. 从人, 尸聲. 按此語先後失倫. 尸古音在十六部. 非聲也. 今依韻會所據小徐本正. 韻會从人之上. 有象人身三字. 亦非也. 躬籀作 躬. 故从其省爲聲. 失人切.)<sup>7)</sup>

단옥재는 『詩經』 「文王之什·大明」에 “태임이 임신하사(大任有身.)”의 ‘身’은 “아기를 배는 것이다.(身, 懷孕也.)”<sup>8)</sup>라고 하였다. 이 글에서 풀이한 내용은 갑골문의 자형과 일치한다.

王力은 “내가 생각건대, 身의 본의는 사람의 몸이다. 王引之는 『經義述聞』에서 ‘사람의 정수리 이하로부터 발뒤꿈치 이상을 총칭하여 身이라고 한다. 목 이하 넓적다리 이상을 또한 身이라고 한다.’라고 하였다.(按, 身的本義是人的軀幹. 王引之 經義述聞 ‘人自頂以下, 踵以上, 總謂之身. 頸以下, 股以上, 亦謂之身.’)”<sup>9)</sup>라고 하였다. 『論語』 「鄉黨」에는 “반드시 잠옷이 있

6) 許慎 撰, 『說文解字』, 中華書局出版, 1994, p.170.

7) 段玉裁, 『說文解字注』, 上海古籍出版社, 1981, p.388.

8) 成百曉 譯註, 『詩經集傳 下』, 전통문화연구회, 1996, p.199.

였으니, 길이가 한 길하고 또 반이 있었다.(必有寢衣, 長一身有半.)<sup>10)</sup>라고 하였는데, ‘一身’을 ‘한 길’이라고 해석한다. 『經義述聞』과 『論語』에서의 ‘身’은 길이 즉 사람의 ‘키’를 가리켜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高明은 “身과 孕은 옛날에 본래 같은 글자였다.(身孕古本同字.)”라고 하였는데, 姚孝遂는 두 글자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sup>11)</sup> 그러나 身과 孕의 갑골문은 두 글자 모두 임신한 여성의 배를 강조한 인체의 상형이므로 두 글자가 同字라는 주장을 따를 만하다.

『爾雅·釋詁』에 “나(我也)”라고 하였으며, 疏에서는 身은 “스스로를 이른다.(身, 自謂也.)”<sup>12)</sup>라고 하였다.

『康熙字典』에서 身에 대해 여러 典籍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孝經·開宗明義章』: 몸과 머리카락, 피부는 부모에게 받은 것이다.  
(身體髮膚, 受之父母.)

『詩經·大雅』: 태임이 임신하여 문왕을 잉태하다.(大任有身 生此文王.)

傳: 신은 무겁다.(身, 重也.)

箋: 重은 회임을 말한다.(重爲懷孕也.)

疏: 몸 안에 또 하나의 몸이 있는 것이므로 무겁다고 한다.(以身中復有一身, 故言重.)<sup>13)</sup>

『康熙字典』에서 인용한 내용 또한 身이 ‘몸’ 혹은 ‘임신하다.’라는 뜻이라고 하였으므로 허신이 말한 본의와 일치한다.

허신은 ‘身’의 본의를 ‘몸’이라고 하고, 尸를 身의 성부라고 하여 형성자로 분류하였는데, 단옥재는 屍는 尸의 주문으로 尸 부분을 생략한 자형 尸(尸)를 성부라고 한 것이나 옳지 않다고 하였다.<sup>14)</sup> 身자는 갑골문과 금

9) 王力(1991), 『同源字典』, 商務印書館, p.538.

10) 成百曉 譯註, 『論語集註』, 전통문화연구원, 1990, p.191.

11) 于省吾 主編, 『甲骨文字詁林』(全四冊), 中華書局, 1996, p.36.

12) 崔亨柱, 李俊寧 編著, 『爾雅注疏』, 자유문고, 2001, p.49.

13) 漢語大辭典編纂處 整理, 『康熙字典·身部』, 上海辭書出版社, 2007, p.1218.

문으로 살펴보면 임신한 여성의 몸을 상형한 글자이므로 身의 자형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허신이 尸를 성부라고 하여 형성자로 분류한 것은 오류로 보인다.

身은 임신한 여성의 측면 모습을 본 때 만든 글자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몸’을 가리키는 글자를 뜻하게 된 것이다. 사람의 몸을 일컬어 ‘身體’라고 하는데, 析言하면 身은 ‘身長’ 즉 ‘사람의 키’를 가리키고, 體는 ‘體重’ 즉 ‘몸무게’를 가리킨다.

(2) 身의 字形演變

<字形表>

字體 字形	甲骨文 <sup>15)</sup>	金文 <sup>16)</sup>	小篆 <sup>17)</sup>	隸書 <sup>18)</sup>				楷書
				古隸		今隸		
字形								
出典	佚586	弔向簋	說文解字	老子甲 16	老子乙 14上	西垂簡 48.4	曹全碑	

‘身’자는 큰 배를 가진 사람의 측면을 상형한 것이다. 甲骨文에서 사람의 배가 커다란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을 𠂇와 같이 표현하였다. 그 안에는 들어있는 卩은 그 형태가 아직 완전하지 않으나 태아임을 알아볼 수 있다. 金文에서는 사람의 형체를 𠂇와 같이 썼는데, 頭部가 갑골문에 비해 강조되어 있을 뿐 자형이 유사하다. 또 腹中의 卩로 인해 배속에 무언가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點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4) 段玉裁, 『說文解字注』, 上海古籍出版社, 1981, p.388.  
 15) 方述鑫, 林小安, 常正光, 彭裕商 編著, 『甲骨金文字典』, 巴蜀書社, 1993, p.605.  
 16) 方述鑫, 林小安, 常正光, 彭裕商 編著, 『甲骨金文字典』, 巴蜀書社, 1993, p.605.  
 17) 許慎 撰, 『說文解字』, 中華書局出版, 1994, p.170.  
 18) 漢語大字典組編(1985), 『秦漢魏隸字形表』, 四川辭書出版社, p.591.

임신 초기의 형태를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소전에서는 갑골문과 금문의 頭部 및 상체 人, 丷를 ㄱ와 같이 썼고, 하체는 금문에서 직선형인 十로 썼던 것을 ㄱ와 같이 곡선형으로 썼다. 큰 배를 가진 인체를 상형한 모양이 ㄱ → ㄱ → ㄱ의 형태로 연변된 것이다. 隸書는 소전에서 곡선형으로 썼던 획을 직선으로 펴서 書寫하여 楷書의 자형과 가까워졌다.

## 2) 孕(아이 뱃 잉)

### (1) 孕의 字源

許慎은 孕의 字源에 대해 『說文解字·子部』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孕은 아이를 감싼 것이다. 子와 儿를 따랐다. 서개가 말하기를 임신한 모양에서 자형을 취하였다. 반절은 以證切(잉)이다. (孕, 裹子也. 从子从儿. 徐鍇曰 取象於裹妊也 以證切.)<sup>19)</sup>

허신은 孕을 ‘아이를 감싸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임신하다, 아이를 배다.’가 본의이다. 또 글자가 子와 儿로 구성되었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 단옥재는 “자가 뜻을 나타내고, 乃가 소리를 나타낸다. 乃聲 두 글자는 다른 본에 儿로 되어있는데, 잘못된 것이다. 지금 바로 잡는다.(从子, 乃聲. 乃聲二字各本作从儿. 誤. 今正.)”<sup>20)</sup>라고 하였다. 儿의 소전은 ㄱ이고 孕은 ㄱ인데 상단 부분이 단옥재의 말대로 儿가 아닌 乃의 자형을 취하고 있다.

『갑골금문사전』에서 “사람의 큰 배 안에 아기가 있는 모습을 상형한 것이다.(象人大服而內有子也.)”<sup>21)</sup>라고 하였다. 高承祚는 『甲骨文字詁林』에서 “사람의 배가 커다란 모양을 상형한 것이다. 그러므로 옛날에 孕을 ‘임

19) 許慎 撰, 『說文解字』, 中華書局出版, 1994, p.310.

20) 段玉裁, 『說文解字注』, 上海古籍出版社, 1981, p.742.

21) 方述鑫, 林小安, 常正光, 彭裕商 編著, 『甲骨金文字典』, 巴蜀書社, 1993, p.1167.

신하다.’라고 하였다. 아이가 뱃속에 있는 것을 상형한 것이다.(象人大服之形, 故古者稱孕曰有身, 象子在腹中也.)”라고 하였다. 또 丁山과 孫海波, 李孝定 등의 학자들도 모두 임신한 여성을 상형한 것이라고 하였다.<sup>22)</sup>

『康熙字典』에서 孕에 대해 여러 典籍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易·漸卦』: 부인이 임신해도 기르지 못할 것이다.(婦孕不育.)

『史記·周本紀』: 姜嫄이 거인의 발자국을 보고 호기심이 생겨 그 발자국을 밟자 마치 잉태한 듯 했다.(姜嫄見巨人跡, 欲踐之, 踐之而身動如孕.)

『禮記·郊特牲』: 희생이 임신한 것은 먹지 않는다.(牲孕弗食.)

『樂記』: 깃털이 있는 것은 알을 품어서 까고, 털이 있는 짐승은 잉태해 기른다.(羽者嫗伏, 毛者孕育.)<sup>23)</sup>

『康熙字典』에서 인용한 내용은 모두 ‘아이를 임신하다.’의 뜻이다. 아래의 <자형표>에서도 갑골문 ㉑는 복중에 아이가 있는 모습이고, ㉒는 임신한 여성의 모습이 더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으므로 ‘孕’은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여성을 상형한 것임이 확실하다. 따라서 ‘孕’의 본의가 ‘임신하다, 아이를 배다.’가 되는 것이다.

(2) 孕의 字形演變

<字形表>

字體 字形	甲骨文		金文	小篆	隸書		楷書
	古隸	今隸					
字形	㉑ 	㉒ 	不見		不見	不見	
出典	佚586 <sup>24)</sup>	乙8504 『續甲骨文編』 <sup>25)</sup>		說文解字			

22) 于省吾 主編, 『甲骨文字詁林』(全四冊), 中華書局, 1996, p.37.

23) 漢語大辭典編纂處 整理, 『康熙字典·子部』, 上海辭書出版社, 2007, p.215

24) 方述鑫, 林小安, 常正光, 彭裕商 編著, 『甲骨金文字典』, 巴蜀書社, 1993, p.1167

孕과 身은 본래 同源字이나 뒤에 분화되었다. 甲骨文 ㉔ ㉕은 복부가 두툽한 사람의 모습을 표현한 ㉔와 복중의 태아가 태에 싸인 모습을 나타낸 ㉕, 즉 ‘子’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배가 튀어나온 임신한 여인을 본뜬 것임을 알 수 있다. ㉖는 임신한 여성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모습이다. 金文은 보이지 않으나 소전에서 아기의 모양인 ㉗가 확실하게 보이므로 갑골문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小篆에서는 갑골문에서 아기를 감싸고 있는 모습인 ㉘를 ㉙로 써서 腹 중에 들어 있던 아이가 밖으로 나와 있는 형태로 변하는데, 이는 服中의 아기가 胎 아래로 내려와 있는 것으로 출산에 임박하여 배가 꽤 부른 상태를 표현하기 위함일 것이다. 갑골문에서 여성의 전신을 상형하여 ㉚로 썼던 것에 비해 소전에서는 ㉛로 사람을 나타내었다. ㉛는 人의 소전 ㉜와 매우 흡사하다. 人은 ㉝<sup>26)</sup>와 같이 다리를 나타내는 부분의 획에 굴곡을 깊이 넣기도 한다. 아마도 아래 ㉞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자형을 변형시킨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㉛는 사람을 나타내는 人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隸書는 보이지 않아 小篆 이후 자형의 연변과정을 파악할 수 없으나 소전의 部件이 楷書에 그대로 전해진 것으로 보아 자형의 考證이 없이 소전 자형을 답습한 것으로 여겨진다.

身과 孕의 갑골문은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금문, 소전으로 이어지면서 身의 복중 태아의 형태는 점점 간략하게 표현한 반면, 孕의 태아의 모습은 확실하게 표현되어 있다. 갑골문으로 미루어 보면 두 글자가 거의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이후의 연변과정에서 身은 인체의 전신을 강조하게 되고, 孕은 태아를 강조한 자형으로 변하여 두 글자의 뜻이 서로 달라지게 된 것이다.

25) 古文字詁林編纂委員會 編纂, 『古文字詁林』, 第10冊, 上海教育出版社, 2004, p.1083.

26) 古文字詁林編纂委員會 編纂, 『古文字詁林』, 第7冊, 上海教育出版社, 2002, p.253 『漢印文字徵』에서 채록.

## 3) 胎(아이 벨 태)

## (1) 胎의 字源

許慎은 胎의 字源에 대해 『說文解字·肉部』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胎는 부인이 아이를 밴지 3개월 된 것이다. 肉의 뜻을 따르고 台가 소리를 나타낸다. 반절은 土來切(태)이다.(胎, 婦孕三月也. 从肉台聲. 土來切.)<sup>27)</sup>

허신은 ‘胎’의 본의를 ‘3개월 된 태아’라고 하였다. 단옥재는 “『爾雅·釋詁』에 이르기를 ‘胎는 처음이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임신된 뜻이다. 『方言』에 ‘胎는 기르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가차하여 胎가 ‘보양하다.’라는 뜻이 된 것이다. 또 이르기를 胎는 ‘달아나다.’라고 하였다. 『方言』에 胎는 기르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가차하여 胎를 ‘보양하다’라는 뜻이 된 것이다. 또 말하기를 ‘출산한 것’이다. 속어이다.(釋詁曰 胎, 始也. 此引伸之義. 方言曰 胎, 養也. 此假借胎爲頤養也. 又曰 胎逃也. 則方俗語言也.)”<sup>28)</sup>라고 하였다. 『康熙字典』에서 『增韻』을 인용하여 “무릇 아이를 배어 아직 태어나지 않은 것을 모두 胎라고 한다.(凡孕而未生, 皆曰胎.)”<sup>29)</sup>라고 하였다. 『禮記·王制』의 “아이 밴 것을 죽이지 않는다.(不殺胎.)”<sup>30)</sup>와 『禮記·月令』의 “애벌레와 아직 태속에 있는 것, 또 작은 짐승, 날기 시작하는 새를 죽이는 일이 없도록 한다.(毋殺孩蟲胎夭飛鳥.)”<sup>31)</sup>에서도 ‘胎’가 아직 태어나지 않는 것을 뜻한다.

‘胎’의 부건 ‘台’에 대해 『說文解字·口部』에서 “기쁘다.(說也.)”<sup>32)</sup>라고 하였고, 단옥재는 “‘台’를 ‘기쁘다.’라고 한 것은 지금의 怡, 悅자이다.(台說者,

27) 古文字詁林編纂委員會 編纂, 『古文字詁林』, 第4冊, 上海教育出版社, 2001, p.414.

28) 段玉裁, 『說文解字注』, 上海古籍出版社, 1981, p.167.

29) 漢語大辭典編纂處 整理, 『康熙字典·月部』, 上海辭書出版社, 2007, p.944.

30) 李民樹 譯解(1985), 『禮記 上』(四書五經 8), 三星文化社, p.282.

31) 李民樹 譯解, 『禮記 上』(四書五經 8), 三星文化社, 1985, p.331.

32) 許慎 撰, 『說文解字』, 中華書局出版, 1994, p.32.

今之怡悅字.)”<sup>33)</sup>라고 하였다. 『廣韻·飴韻』에는 “나 자신이다.(我也.)”라고 하였고, 『廣韻·胎韻』에는 “삼태성이다.(三台星.)”<sup>34)</sup>라고 하였다.

‘태’의 갑골문은 보이지 않으며, 금문이나 소전, 예서의 자형을 보더라도 ‘태’가 무엇을 나타내었는지 알 수가 없고, 이에 대한 연구도 명확하지 않아 ‘태’가 ‘胎’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분명하게 밝힐 수가 없다. 다만 복중의 태아를 상형하였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현재까지 연구된 바로는 ‘태’가 ‘胎’에 있어서 의미 작용은 하지 못하고, 표음 작용만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胎는 ㅅ을 성부로 한 형성자이다. ㅅ을 ‘與之切(이)’로 읽으면, 훈음이 ‘나 이’이고, ‘土來切(태)’로 읽으면 ‘별 태’이다. ‘胎’의 반절은 ‘土來切(태)’이므로 ‘태’가 聲符이다. 단옥재가 ㅅ을 怡(기쁠 이), 悅(기쁠 열)의 本字로 여겼는데, 怡자에서는 ‘與之切(이)’이 성부이다.

‘胎’는 여러 典籍의 내용을 살펴보면, 모두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를 가리키고 있다. 따라서 인신하여 사물의 시초를 나타내는 뜻으로도 쓰이는 글자이다.

## (2) 胎의 字形演變

<字形表>

字體 字形	甲骨文	金文	小篆	隸書		楷書
				古隸	今隸	
字形	不見	不見			不見	胎
出典			說文解字	戰國 墮胎戈		

33) 段玉裁, 『說文解字注』, 上海古籍出版社, 1981, p.58.

34) 根据張氏澤存堂本影印, 『宋本廣韻』, 北京市中國書店, 1982, p.39, p.80.

胎의 갑골문과 금문은 보이지 않는다. 소전은 𠂔과 𠂔가 결구되어 있다. 𠂔은 인체와 유관한 한자에 쓰이는 편방 肉의 변형자이고, 𠂔는 ㅍ이다.<sup>35)</sup> ㅍ에 대해 『古文字詁林』에서는 孫詒讓, 強運開, 徐中舒 등의 학자들이 ㅍ는 以와 동자라고 하였다.<sup>36)</sup> 以의 갑골문은 𠂔(甲 354) 𠂔(後 2.34.8)<sup>37)</sup>이고, 금문은 𠂔(頌簋)<sup>38)</sup> 𠂔(禹鼎)<sup>38)</sup>, 소전은 𠂔이다. ㅍ의 갑골문은 보이지 않고, 금문은 𠂔(邾公桴鐘)<sup>39)</sup> 소전은 𠂔, 예서는 𠂔(老子甲 57), 𠂔(景北海碑陰)<sup>40)</sup>인데, 상단의 자형이 모두 以와 유사하여 이렇게 여긴 듯하다. 그러나 이들 학자들은 두 글자가 동자라고 하면서도 이들 글자를 통용하여 쓴 예를 제시하지 않았고, 실제로 통용하여 쓴 예를 찾기 어려워 이러한 설명을 취하기 어렵다.

ㅍ는 상단 자형을 금문에서 𠂔와 같이 썼던 것을 소전에서는 더 굴곡지게 𠂔와 같이 썼고, 예서에 이르러서는 곡선형의 획을 곧게 펴서 𠂔와 같이 썼다. 하단의 자형은 금문에서 예서까지 큰 변화가 없다. 해서에서는 예서의 𠂔를 ㅍ와 같은 자형으로 쓰고 하단은 ㅍ로 써서 ㅍ로 연변되었다.

#### 4) 始(처음 시)

##### (1) 始의 字源

許慎은 始의 字源에 대해 『說文解字·女部』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始는 '여성의 시작이다. 女가 뜻을 나타내고 ㅍ가 소리를 나타낸다. 반절은

35) 漢語大字典字形組編, 『秦漢魏晉篆隸字形表』, 四川辭書出版社, 1985, p.87.  
 36) 古文字詁林編纂委員會 編纂, 『古文字詁林』, 第2冊, 上海教育出版社. 2000, p.62.  
 37)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編輯, 『甲骨文編』, 中華書局影印, 1964, p.565.  
 38) 容庚 編著, 『金文編』, 中華書局, 1992, p.995.  
 39) 容庚 編著, 『金文編』, 中華書局, 1992, p.64.  
 40) 漢語大字典字形組編, 『秦漢魏晉篆隸字形表』, 四川辭書出版社, 1985, p.87.

詩止切(시)이다.(始, 女之初也. 从女台聲. 詩止切.)<sup>41)</sup>

허신은 ‘始’의 본의를 ‘女之始也.’라고 하였는데, 이는 여자가 성장하여 성인 여성이 되기 시작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吳大澂도 “始는 부녀자가 성장한 것이다.(始, 婦女長者.)”<sup>42)</sup>라고 하였다. 단옥재는 “여인의 시작이다. 『爾雅釋詁』에 이르기를 ‘初는 처음이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서로 교차하여 글자의 뜻을 설명한 것이다. 初는 마름질로서 모든 옷을 만드는데 처음이다. 基는 담장을 만드는데 처음이다. 가차하여 胎를 始로 여긴다. 『詩經邶風』「七月」毛傳에 ‘胎는 처음이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女之初也. 釋詁曰 初, 始也. 此與爲互訓. 初, 裁皆衣之始也. 基者, 牆之始也. 有段殆爲始者. 七月毛傳云殆始也 是也.)”<sup>43)</sup>라고 하였다. 그러나 『古文字詁林』에서 吳大澂, 吳式芬, 方濬益 등은 모든 경전에서 姒자를 始로 썼으며, 姒는 始의 異文이라고 하였다. 馬叙倫도 “사람이 태어나는 것을 始라고 한다. 그러므로 인신하여 최초로 칭하게 된 것이다. 始의 본의는 ‘낳다.’이다. 내가 생각건대, 始는 胎의 異文이다. 사람이 태어나는 일에 ‘胎’보다 앞선 것은 없다. 여인의 시작이라는 것은 본의가 아니다.(人之生謂始. 故引伸爲最初者之稱. 始之本義爲生. 故字從女. 倫按始爲胎之異文. 人生莫先於胎. 女之初也非本訓.)”<sup>44)</sup>라고 하였다. 始와 胎가 서로 인신되거나 가차하여 ‘시작하다.’라는 뜻으로 혼용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이러한 해석이 나온 듯하다.

‘始’ 또한 ‘胎’와 마찬가지로 ‘습’을 성부로 한 형성자이다. ‘始’와 ‘胎’를 서로 혼용하여 썼으며, 부건만 다를 뿐 성부가 같아 ‘아기를 배다.’라는 뜻에서 인신하여 ‘시작하다.’라는 뜻이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아기를 낳는 주체가 여성이므로 ‘始’에서는 ‘女’를 부수로 취했고, 인체와 유관한 글자

41) 許慎 撰, 『說文解字』, 中華書局出版, 1994, p.260.

42) 古文字詁林編纂委員會 編纂, 『古文字詁林』, 第9冊, 上海教育出版社, 2004, p.817.








43) 段玉裁, 『說文解字注』, 上海古籍出版社, 1981, p.617.

44) 古文字詁林編纂委員會 編纂, 『古文字詁林』, 第9冊, 上海教育出版社, 2004, p.818.

는 ‘肉(月)’을 부수로 삼기 때문에 ‘胎’의 부수가 ‘肉(月)’이다. 자형은 다르나 女와 肉은 무관하지 않으므로 두 글자를 혼용하여 사용하였을 것이나 지금은 각각 ‘시작하다.’, ‘아이를 배다.’라는 뜻으로 구분하여 쓰이고 있다.

(2) 始의 字形演變

<字形表>

字體 字形	甲骨文	金文 <sup>45)</sup>			小篆	隸書 <sup>46)</sup>		楷書
						古隸	今隸	
字形	不見	 (a)	 (b)	 (c)		 (a)	 (b)	
出典		班殷	頌鼎	弔向父簋	說文解字	泰山刻石	老子甲58	孔穌碑

始는 女와 台가 결구되어 있는 글자이다. 女는 여성이 두 손을 모아 무릎에 올려놓고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여성의 모습을 상형한 글자이다. (鐵16451)<sup>47)</sup> 台의 연변과정은 前項의 ‘胎’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5) 包(쌀 포)

(1) 包의 字源

許慎은 包의 字源에 대해 『說文解字·包部』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包는 사람이 임신한 것으로 巳가 복중에 있는 모양을 상형한 것이다. 아이가 아직 사람의 모습을 갖추지 못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원기는 子에서 일어난다. 子는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다. 남자는 순행으로 서른 번째 지지가 巳이고, 여자는 역행하여 스무 번째 지지가 巳이다. 巳에서 함께 부부가 된다. 巳에

45) 容庚 編著, 『金文編』, 中華書局, 1992, p.802-p.803.  
 46) 漢語大字典形組編, 『秦漢魏隸字形表』, 四川辭書出版社, 1985, p.886.  
 47)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編輯, 『甲骨文編』, 中華書局影印, 1964, p.468.

서 임신하므로 巳는 子이다. 아이는 열 달 후 태어난다. 남자는 巳부터 寅에 이르고 여자는 巳로부터 申에 이른다. 그러므로 남자는 나이를 寅에서 시작하고 여자는 나이를 申에서 시작한다. 무릇 包部에 속하는 한자는 모두 包의 의미를 따른다. 반절은 布交切(포)이다.(包, 象人裹妊, 巳在中, 象子未成形也. 元氣起於子. 子, 人所生也. 男左行三十, 女右行二十, 俱立於巳, 爲夫婦. 裹妊於巳, 巳爲子, 十月而生. 男起巳至寅, 女起巳至申. 故男季始寅, 女季始申也. 凡包之屬皆从包. 布交切.)<sup>48)</sup>

허신은 包에 대해 ‘사람이 임신한 몸을 상형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단 옥재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 두 글자는 다른 본에는 없다. 지금 글의 뜻을 미루어 보충한다. 다음 글의 13자는 곧 자형을 설명한 것이고 뜻을 설명한 것이 아니다. 반드시 뜻을 설명하는 文이 있어야 한다. 女부에서 妊은 孕이라고 하였다. 子部에서는 孕을 裹子(아기를 감싸다)라고 하였다. 임신하여 바깥을 감싸는 것을 칭하게 되었다. 또한 菴로 쓰기도 한다. 모두 가차자이다. 경전에서 菴라고도 하고 苴라고도 하는데 싸는 것을 菴라고 하고 까는 것을 苴라고 한다.(包, 妊也. 二字各本無. 今推文意補. 下文十三字乃說字形, 非說義. 則必當有說義之文矣. 女部曰. 妊者, 孕也. 子部曰. 孕者, 裹子也. 引伸之爲凡外裹之稱. 亦作菴. 皆假借字. 凡經傳言菴苴者, 裹之曰菴, 藉之曰苴. 象人裹妊. 巳在中, 象子未成形也. 勺象裹其中. 巳字象未成之子也. 勺亦聲.)<sup>49)</sup>

단옥재는 ‘包’의 본의는 ‘아기를 감싸다.’인데, 임신하여 사물의 바깥을 감싸는 것도 ‘包’라고 한다고 하였다. 다음은 ‘包’가 ‘감싸다.’의 뜻으로 쓰인 예이다.

『詩經·召南』: 들에 죽은 노루가 있거늘 흰 띠 풀로 싸도다.(野有死麕, 白茅包之.)<sup>50)</sup>

48) 許慎 撰, 『說文解字』, 中華書局出版, 1994, p.633.

49) 段玉裁, 『說文解字注』, 上海古籍出版社, 1981, p.434.






『書經·禹貢』: 싸고 동여맨 세 골진 띠(包匭菁茅.)<sup>51)</sup>

『禮記·樂記』: 干戈를 뒤집어서 호피에 싸다.(倒載干戈, 包以虎皮.)<sup>52)</sup>

위의 예문에서 ‘包’는 인신의인 물건을 ‘감싸다.’라는 뜻으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包’는 복중의 아이, 즉 태아가 태보에 싸인 모양을 상형한 글자이므로 그 본의는 ‘아기를 감싸다.’이다. 이후 인신되어 태아 이외의 물건 등을 감싼다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

(2) 包의 字形演變

<字形表>

字形	字體			隸書 <sup>53)</sup>			楷書
	甲骨文	金文	小篆	古隸		今隸	
字形	不見	不見					
出典			說文解字	天文雜占 末·上	睡虎地簡 28.7	熹·易·姤	

包의 갑골문과 금문은 보이지 않는다. 소전에서는 길을 감싸고 있는 모양 〇와 그 안에 아직 사람의 형체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태아의 모습인 ㉸가 들어 있는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임신 초기의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〇는 아기를 감싸고 있는 것이므로 ‘태보’를 나타낸 것이다. 古隸 ㉸에서는 소전의 태보 〇보다 벌어진 형태인 ㉹로 썼고, ㉹에서는 ㉺와 같이 각이 지게 썼다. 태아를 상형한 ㉸을 古隸 ㉸에서는 ㉻로 써서 소전과 유사하나 ㉹에서는 ㉼로 써서 楷書 包의 하단 자형인 ㉽와

50) 成百曉 譯註, 『詩經集傳 上』, 전통문화연구원, 1996, p.67.  
 51) 金冠植 譯解, 『書經』(四書五經 4), 삼성문화社, 1985, p.89.  
 52) 李民樹 譯解, 『禮記 中』(四書五經 8), 삼성문화社, 1985, p.325.  
 53) 漢語大字典形組編, 『秦漢魏隸字形表』, 四川辭書出版社, 1985, p.591.

그 형태가 가까워졌다. 今隸에서는 태보를 ㄱ로 써서 해서와 유사하게 연변되었고, 태아의 모습은 고예의 ㉞자형과 유사하게 ㄱ로 연변되어 해서로 이어졌다.

## 6) 胞(아이 벨 포)

### (1) 胞의 字源

許慎은 胞의 字源에 대해 『說文解字·肉部』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胞는 아이가 생겨 싸고 있는 것이다. 肉과 包로 구성되어 있다. 半절은 匹交(포)이다.(兒生裹也. 从肉, 从包. 匹交切.)<sup>54)</sup>

허신은 胞의 본의를 ‘아이가 생겨 싸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므로 ‘태보’를 가리킨다. 단옥재는 이에 대해 『說文解字注』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包란 어미의 배를 말한다. 胞는 胎衣(태반과 태막)를 말한다. 『詩經·小雅』에 ‘터럭에도 연결되지 않으며 가슴속에 걸리지도 않는가.’라고 하고, 箋에 이르기를 ‘이제 내가 어찌 아버지의 피부의 기운을 얻지 아니하고, 어찌 어미의 포태에 안거하지 아니하겠는가?’라고 하였다. 『釋文』에 胞의 소리는 包이다. 지금은 속어로 胞와 같다고 한 것이 이것이다. 가차하여 脬(포)로 쓰이기도 한다. 그러므로 匹交切(포)라고 읽는다. 脬는 방광이다. 배속에 물을 저장하는 곳이다.(包謂母腹. 胞謂胎衣. 小雅, 不屬于毛 不離于裹. 箋云, 今我獨不得父皮膚之氣乎. 獨不處母之胞胎乎. 釋文, 胞音包. 今俗語同胞是也, 其借爲脬字, 則讀匹交切. 脬者, 旁光也. 腹中. 水府也.)<sup>55)</sup>

단옥재도 胞를 胎衣라고 하였으므로 ‘태보’라고 풀이한 것이다. 『莊子·

54) 許慎 撰, 『說文解字』, 中華書局出版, 1994, p.633.

55) 段玉裁, 『說文解字注』, 上海古籍出版社, 1981, p.434.

外物篇』“胞에는 중첩된 공간이 있고, 마음에는 자연스런 여유가 있다.(胞有重閭, 心有天遊.)”의 注에 “胞는 배속의 막이고, 閭은 공허함이다.(胞, 腹中胎. 閭空曠也.)”<sup>56)</sup>라고 하였다. 역시 ‘태막’, 즉 ‘태보’를 가리킨다.

胞의 부건 包는 아기를 감싼 모양을 상형한 글자이다. 胞는 배속의 태아를 감싸고 있는 막을 가리키므로 包의 의미가 글자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胞’의 본의가 태아를 잘 감싸서 보호하는 ‘태보’가 되는 것이다.

(2) 胞의 字形演變

<字形表>

字體 字形	甲骨文	金文	小篆	隸書 <sup>57)</sup>		楷書
				古隸	今隸	
字形	不見	不見				
出典			說文解字	五十二病方· 目錄	曹全碑	

胞의 갑골문과 금문은 보이지 않는다. 소전의 胞는 月(肉)과 包가 결구되어 있는데, 月(肉)은 몸을 뜻하는 글자에 편방으로 쓰이는 글자이고, 包는 아기가 태보에 싸인 모양을 상형한 글자이다. 胞의 구건 包의 연변과정은 前項의 ‘包’자와 동일하다.

7) 胚(胚)(아이 뱃 배)

(1) 胚(胚)의 字源

許慎은 胚(胚)<sup>58)</sup>의 字源에 대해 『說文解字·肉部』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

56) 朴一峰 譯著, 『莊子 雜篇』, 도서출판 육문사, 2003, p.183.

57) 漢語大字典組編, 『秦漢魏隸字形表』, 四川辭書出版社, 1985, p.272.

58) 『說文解字』에 ‘胚’는 보이지 않는데, ‘胚’를 ‘胚’로 쓰기도 하여 두 글자를 同字로 보고 있으므로 본 단락에서는 ‘胚’의 자원을 찾아 분석하겠다.

였다.

부인이 아이를 뱀지 1개월 된 것이다. 肉이 뜻을 나타내고 不가 소리를 나타낸다. 반절은 匹栝切(배)이다.(婦孕一月也. 从肉不聲. 匹栝切.)<sup>59)</sup>

허신은 胚(胚)의 본의를 ‘임신한 지 1개월 된 아기’라고 하였다. 단옥제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文字』에 이르기를 ‘1개월이면 기름덩이가 생기고, 2개월이면 핏줄이 생기며, 3개월이면 살덩이가 생기고, 4개월이면 胎(태반과 태막)가 생기며, 5개월이면 근육이 생기고, 6개월이면 뼈가 생기며 7개월이면 형체가 이뤄지고 8개월이면 움직이기 시작하며 9개월이면 놀고 10개월에 태어난다.’라고 하였다. 『淮南子』에 이르기를 ‘1개월이면 기름이 생기고 2개월이면 핏줄이 생기며 3개월이면 胎(태반과 태막)가 생긴다.’라고 하였는데, 설명은 각기 다르나 대체로 동일하다.(月而膏. 二月血脈. 三月而胚. 四月而胎. 五月而筋. 六月而骨. 七月而成形. 八月而動. 九月而躁. 十月而生. 一月而膏. 二月而胚. 三月而胎. 說各乖異. 其大致一也.)<sup>60)</sup>

단옥제는 복중 아이의 성장 과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爾雅·釋詁』 “胎는 처음이다.(胎始也.)”의 注에 “胚와 胎는 형체를 이루지 못한 것이고, 또 사물의 시작이다.(胚胎未成, 亦物之始也.)”<sup>61)</sup>라고 하였다. 胚와 胎 두 글자는 아직 완전한 모습을 갖추지 못한 태아를 지칭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사물의 시작’이라고 풀이한 것이다.

胚(胚)의 부건 ‘不’는 ‘丩’의 初文으로 씨앗의 싹이 트기 위해 씨방이 부

59) 許慎 撰, 『說文解字』, 中華書局出版, 1994, p.278.





60) 許慎 撰, 『說文解字』, 中華書局出版, 1994, p.246. : 허신은 『說文解字·不部』에 “새가 위로 날아올라가 아래로 내려오지 않는 것이다.(鳥飛上翔不下來也.)”라고 하였으나, 여러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허신의 설은 본의로 보기 어렵고 꽃의 씨방이 부풀어 오른 모습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61) 崔亨柱, 李俊寧 編著, 『爾雅注疏』, 자유문고, 2001, p.23.

풀어 오른 모습을 상형한 것으로 본래 ‘크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sup>62)</sup> 후에 ‘不’이 부정사로 쓰이게 됨에 따라 하단에 一을 더하여 ‘丕’를 ‘크다’라는 글자로 썼기 때문에 두 글자가 통용된다. 따라서 胚를 胚로 쓰기도 하는 것이다. 또한 ‘不’의 본의인 ‘크다.’가 아기를 배어 배가 부풀어 감을 나타낸 胚(胚)자의 聲符가 됨과 동시에 義符로 작용하여 임신하여 태아가 자라고 배가 부풀어 오르게 된다는 뜻을 나타내게 되었다.

(2) 胚의 字形演變

<字形表>

字體 字形	甲骨文 <sup>63)</sup>		金文 <sup>64)</sup>	小篆	隸書		楷書
	古隸	今隸					
字形	㉓  (不)	㉔  (不)	 (不)		不見	不見	<b>胚(胚)</b>
出典	甲2363	後1.9.10	頌鼎3	說文解字			

不의 甲骨文은 ㉓  ㉔  와 같이 쓰는데, 허신이 『說文解字·不部』에서 “새가 위로 날아올라가 아래로 내려오지 않는 것이다.(鳥飛上翔不下來也.)”라고 하였으므로, 不이 새를 상형한 것이어야 하는데, 갑골문 자형으로는 새의 자형으로 보기 어렵다. ㉓의 하단은 나무의 뿌리가 뺏은 모양으로 보이며, ㉔ 또한 상단이 一은 地上을 나타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금문은 갑골문 ㉔와 유사하다. 소전의 不는 곡선형으로 丕와 같이 썼다. 不의 예서는 보이지 않으나 예서는 일반적으로 소전에 비해 직선형으로 쓰기 때문에 해서와 유사하게 연변되었을 것이다. 胚는 肉과 不 혹은 丕가 결구되어 있는데, 인체에 관계된 글자를 구성하는 肉은 주로

62) 古文字詁林編纂委員會 編纂, 『古文字詁林』, 第1冊, 上海教育出版社, 2000, p.29.  
 63)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編輯, 『甲骨文編』, 中華書局影印, 1964, p.46.  
 64) 容庚 編著, 『金文編』, 中華書局, 1992, p.461.

ㄹ의 형태로 쓰기 때문에 胚(胚)의 편방도 역시 ㄹ로 썼다.

## 2. 出產

본 章에서는 ‘出產’과 관련이 있는 漢字의 字源과 字形演變을 알아보겠다. 출산은 잉태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다. 과거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의 출산은 자칫 산모 및 태아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몹시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일이었기에 민간에서는 안전한 출산을 위한 비법이 성행하기도 하였다.<sup>65)</sup> 다음은 ‘出產’에 관한 한자 產, 了, 娩(娩)의 자원분석과 자형연변과정의 서술이다.

### 1) 產(낳을 산)

#### (1) 產의 字源

許慎은 產의 字源에 대해 『說文解字·生部』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產은 ‘낳는 것’이다. 生이 뜻을 나타내고 彥의 생략된 자형이 소리를 나타낸다. 반절은 所簡切(산)이다.(產, 生也. 从生, 彥省聲. 所簡切.)<sup>66)</sup>

65)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지역에서 행해지는 출산과 관련한 전통 의례 : 임신부가 있는 가정에서는 분만일이 가까워오면 보리짚을 준비한다. 산모가 진통이 있으면, 보리짚을 방안에 깔고 바구니나 떡서리에 옷 따위를 가득 담고 베개를 얹힌다. 방안에 보리짚을 까는 이유는 보리짚이 생산과 풍요를 지니기 때문에 그 주술력과 관련된다고 본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657806&cid=51954&categoryId=55472>

\* 충청남도 당진에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행하던 풍속 : 당진 송악 지방에서는 산모가 아기를 가지면 우선 해산쌀이라 해서 싸라기 하나 없는 백미를 골라서 한 말 정도 산실에 두며 해산미역도 함께 장만해 둔다. 산기가 있으면 삼신상(三神床)을 준비하여 삼신할머니에게 아기가 무사하게 태어나고 산모 또한 건강하기를 빌었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149858&cid=60111&categoryId=60166> 검색일 2018.10.25

66) 許慎 撰, 『說文解字』, 中華書局出版, 1994, p.260.

허신은 ‘産’의 본의를 ‘낳다.’라고 하였다. 다음은 여러 典籍에서 ‘産’에 대해 풀이한 내용이다.

『康熙字典』: 『正字通』에 부인이 아기를 낳는 것을 産이라고 한다. 생물이 싹트는 것 또한 産이라고 한다.(正字通 婦生子曰産, 物生亦曰産.)<sup>67)</sup>

『禮記·鄉飲酒禮』: 만물을 낳는 자는 聖이다.의 注에 聖은 生을 말한다.라고 하였다.(産萬物者, 聖也. 註 聖之言生也.)<sup>68)</sup>

『周禮·春官·大宗伯』: 천산으로써 음덕을 일으켜서 예에 적중하게 하여 대비하고, 지산으로써 양덕을 일으켜서 음악에 화락하게 하여 대비한다.의 注에 천산은 동물로 육생의 등속을 말하고, 지산은 식물로 곡곡의 등속을 말한다.(以天産作陰德, 以中禮防之, 以地産作陽德, 以和樂防之. 註 天産者動物, 謂六牲之屬. 地産者植物, 謂九穀之屬.)<sup>69)</sup>

위에 인용한 예문은 ‘産’이 아기를 낳는 것뿐만 아니라 만물을 낳는다는 뜻으로 풀이한 내용이다. 産은 사람이 태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동물이나 식물 등 만물의 탄생을 총칭하는 말로 쓰이기도 한다. 郭沫若은 『古文字詁林』에서 “産은 탄생의 처음이다.(産者生之初也.)” 또 戴家祥은 “식물이 자라는 모양을 상형한 것으로 마땅히 땅에서 바야흐로 돌아나는 것을 가리킨다.(象植物生長形, 當指地方出産.)”라고 하였다. 蔡運章은 産(金文編) 자형을 제시하면서 侯馬盟書의 産(侯馬盟書字表)와 구성이 서로 유사하다고 하였다.<sup>70)</sup> 侯馬盟書의 産는 ‘産’ 임을 정확하게 알아 볼 수 있는데, 産와 産 모두 하단의 자형은 ‘生’으로 땅에서 식물이 자라나는 자형을 상형한 것이다. 『急就篇』에 “너와의 마룻바닥판자는 곡구, 사구에서 나온

67) 漢語大辭典編纂處 整理, 『康熙字典·子部』, 上海辭書出版社, 2007, p.708

68) 李民樹 譯解, 『禮記 下』(四書五經 9), 三星文化社, 1985, p.365

69) 이준영 해역, 『주례』, 자유문고, 2002, p.228. : 六牲은 희생(犧牲)으로 쓰는 여섯 가지 가축(家畜). 곧 말, 소, 양, 닭, 개, 돼지이고, 九穀은 수수, 옥수수, 조, 벼, 보리, 참밀, 콩, 팥, 깨의 아홉 가지 곡식(穀食)을 가리킨다.

70) 古文字詁林編纂委員會 編纂, 『古文字詁林』, 第6冊, 上海教育出版社, 2003, p.100.

다.(板柞所產谷口斜.)”의 注에 “所產은 生産이다.”<sup>71)</sup>라고 하였다. 따라서 식물이 ‘자라나다’라는 뜻을 나타내게 되면서, 아기나 동물, 식물 모두를 ‘낳다.’ 혹은 ‘생산하다.’라는 뜻을 가지게 된 것이다.

허신은 彦의 생략된 자형인 产이 성부라고 하였다. 産의 상고음은 元韻 初紐, 중고음은 産韻 山紐이고, 彦의 상고음은 元韻 疑紐, 중고음은 線韻 疑紐<sup>72)</sup>이므로 韻母는 豐韻이나 聲母는 産이 齒音이고, 彦은 牙音이므로 近音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彦의 생략된 자형 产은 産의 성부가 될 수 없다. ‘産’의 부견 ‘生’은 땅에서 식물이 싹터 나오는 모습을 상형한 글자이다. 따라서 生은 ‘産’의 자의인 ‘낳다.’라는 뜻에 의미로 작용한다.

## (2) 産의 字形演變

### <字形表>

字體 字形	甲骨文	金文	小篆	隸書 <sup>73)</sup>				楷書
				古隸		今隸		
字形	不見	不見	産	① 産	② 産	③ 産	④ 産	産
出典			說文解字	春秋事語 41	相馬經 55上	韓仁銘	曹全碑	

産의 甲骨文과 金文은 보이지 않는다. 産의 소전은 産과 産이 결구되어 있는데, 허신은 産를 彦의 생략된 자형으로 보았다. 産의 자형이 彦의 자형과 유사하여 이러한 설명을 한듯하나 이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한 내용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産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확실하게 알 수가 없다. 고예에서는 소전의 産를 産와 같이 써서 자형이 매우 유사하여 연변

71) 顏師古 註釋, 梁曉星 編譯, 『史游 急就章』, 2008, p.183.

72) 郭錫良, 『漢字古音手冊』, 北京大學出版社, 1986, p.189, 201면.

73) 漢語大字典字形組編, 『秦漢魏晉篆隸字形表』, 四川辭書出版社, 1985, p.404.

과정의 변화가 크지 않다. 하단의 生은 𠄎와 써서 왼 𠄎침 획이 보이지 않으나 지면에서 식물의 싹이 돋아나온 모양을 나타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금에는 고예보다 더 평직화된 자형으로 썼을 뿐 변화가 심하지 않으며, 해서와 자형과 매우 유사하게 연변되었다.

## 2) 了(마칠 료)

### (1) 了의 字源

許慎은 了의 字源에 대해 『說文解字·了部』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了는 종아리가 엇갈린 것이다. 팔이 없는 아이의 모양을 따랐다. 상형이다. 무릇 了에 속하는 글자는 모두 了를 따른다. 반절은 盧鳥切(료)이다.(了, 𠄎也. 从子無臂. 象形. 凡了之屬皆从了. 盧鳥切.)<sup>74)</sup>

허신은 ‘了’의 본의를 ‘𠄎(다리 꼬일 료)’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 단욱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𠄎는 걸을 때 종아리가 서로 엇갈리는 것이다. 소가 걸을 때 종아리가 서로 엇갈리는 것도 𠄎라고 한다. 모든 사물의 두 다리 혹은 한 다리를 엮고 비틀어 꼬아 묶어서 곧게 펴지 못하는 것을 了戾라고 한다. 『方言』에 𠄎는 ‘매달다.’라고 하였다. 郭璞 注에 ‘了𠄎는 물건을 매단 모양이다. 반절은 丁小反(조)이다.’라고 하였다. 내가 생각건대 다른 책에서 인용하여 모두 了를 𠄎로 썼다. 또한 곧 허신은 了를 𠄎라고 하였다. 가차하여 憭悟(깨닫다, 총명하다.)라는 글자가 되었다.(𠄎, 行脛相交也. 牛行腳相交爲𠄎. 凡物二股或一股結糾紛縛不直伸者曰了戾. 方言曰 𠄎, 縣也. 郭注 了𠄎, 縣物兒. 丁小反. 按他書引皆作了𠄎. 亦卽許之了𠄎也. 段借爲憭悟字.)<sup>75)</sup>

74) 許慎 撰, 『說文解字』, 中華書局出版, 1994, p.310.

75) 段玉裁, 『說文解字注』, 上海古籍出版社, 1981, p.743.

단옥재는 ‘了’의 뜻을 ‘종아리가 엇갈린 모양으로 풀이하였다. 또한 『方言』을 인용하여 ‘물건을 매단 모양’이라고 하였는데, 陳獨秀는 “내가 생각 건대 了와 丿는 방향만 뒤집혔을 뿐 같은 글자이다. 본의는 남성의 음경을 상형한 글자이나 인신되어 ‘물건을 걸다’라는 뜻이 되었다. 손잡이가 길고 머리가 구부러진 물건을 이른다. 『說文』에서 ‘팔이 없는 아이의 모양을 따랐다’고 한 것은 잘못 되었다.(按了 丿倒順一字, 本象南陰, 引伸爲懸掛者. 謂長柄曲首之物有以鉤之也, 說文云 了從子無臂, 非也.)”<sup>76)</sup>라고 하였다. 丿의 상단부분 ㄱ는 손잡이이고, 하단의 ㄴ는 갈고리 모양이므로 물건을 걸 수 있는 것으로 풀이한 것이다. 그러나 馬叙倫은 章炳麟의 말을 인용하여 “팔이 없는 아이의 모양을 따른 상형자라고 한 것은 아이가 배속에서 손발을 구부려 서로 교차하고 있으므로 보이지 않아서이다.(從子無臂象形字, 謂子在腹中, 手足奉曲相交, 不見臂.)”<sup>77)</sup>라고 하였다. 章炳麟의 말은 허신이 설명한 내용과 같다.

『玉篇』에 ‘了’는 “걸다. 마치다. 지혜롭다.(掛也. 訖也. 慧也.)”라고 하였고, ‘丿’는 “물건이 걸려 있는 모양이다.(懸物兒也.)”<sup>78)</sup>라고 하였다.

‘了’는 팔다리를 엇갈리게 하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상형한 글자이므로 ‘엇갈리다.’가 본의이나 ‘了’가 뒤집힌 모양인 ‘丿’와 동자로 보아 ‘걸다.’라는 뜻을 나타내기도 하고, 가차하여 ‘충명하다.’, ‘마치다.’라는 뜻을 나타낸다. ‘了’는 팔이 보이지 않고 다리는 하나만 표현한 아기를 상형한 것인데, 章炳麟은 배속의 아기가 팔다리를 구부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였으나, 출산 후 아직 팔다리가 펴지지 않은 아이를 상형한 것으로 보이므로 ‘출산에 관련된 글자로 분류하여 풀이하였다.’

76) 古文字詁林編纂委員會 編纂, 『古文字詁林』, 第10冊, 上海教育出版社, 2004, p.1097.

77) 古文字詁林編纂委員會 編纂, 『古文字詁林』, 第10冊, 上海教育出版社, 2004, p.1097.

78) 顧野王, 『大廣益會玉篇』, 中華書局, 1987, p.134.

(2) 了의 字形演變

<字形表>

字形	字體	甲骨文	金文	小篆	隸書 <sup>79)</sup>		楷書
					古隸	今隸	
字形		不見	不見		不見		
出典				說文解字		樓蘭古文書 其二一	

甲骨文에서 ‘子’는 𠂔(前3.4.4)<sup>80)</sup>와 같이 머리털이 있는 얼굴과 다리를 상형한 모양으로 썼다. 金文의 ‘子’는 갑골문과 유사하게 𠂔(所軻)로 쓰기도 하고, 𠂔(孟鼎)<sup>81)</sup>와 같이 머리와 팔 몸만 간략하게 표현한 자형으로 쓰기도 하였다. ‘了’의 갑골문과 금문은 보이지 않으나 小篆의 자형을 살펴 보면 금문 𠂔에서 팔의 모양을 뺀 형태이다. 예서에서는 소전에서 𠂔와 같이 동그랗게 그린 머리를 각이 지게 ㄱ와 같이 그렸고, 몸은 소전과 같이 하나의 획으로 그려 해서로 이어졌다.

3) 媿(媿)(해산할 만)

(1) 媿(媿)의 字源

許慎은 媿(媿)의 字源에 대해 『설문해자子部』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媿은 ‘아이가 생겨 출산한 것’이다. 子와 免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절은 芳萬切(만)이다. 서개가 말하기를 『설문』에는 免자가 없다. 아마도 이것은 媿자의 생략된 자형을 따랐을 것이다. 몸에서 벗어났다는 뜻으로써 解免의 免과 쓰임이 같다. 媿과 媿과 같은 글자들은 모두 생략된 자형을 따랐다.’라고 하였다.

79) 漢語大字典字形組編, 『秦漢魏晉篆隸字形表』, 四川辭書出版社, 1985, p.1059.

80)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編輯, 『甲骨文編』, 中華書局影印, 1964, p.556.

81) 容庚 編著, 『金文編』, 中華書局, 1992, p.981.

서현이 말하기를 ‘지금 속어로 亡辯切(면)이라고 한다.’라고 하였다.(旣, 生子免身也。从子从免。芳萬切 徐鍇曰 說文 無免字, 疑此字从媿省。以免身之義, 通用爲解免之免。晚冕之類皆當从省。臣鉉等曰 今俗作亡辯切。)<sup>82)</sup>

허신은 ‘旣’을 ‘아이가 생겨 출산한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해산하다.’가 본의가 된다. 『설문해자』에서 旣의 반절이 芳萬切(만)이라고 하였고, 서현은 亡辯切(면)은 속어라고 하였는데, 지금은 亡辯切(면)으로 읽으므로, 이는 俗音이 正音으로 대체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단옥재는 ‘旣’의 부건 ‘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내 생각에는 허신의 『설문해자』에는 免자가 없는데 이 조항에 근거하면 마땅히 免자가 있어야 하지만 우연히 일실되었다. 바로 由자와 같은 경우일 뿐이다.(按許書無免字。據此條則必當有免字。偶然逸之。正如由字耳。)<sup>83)</sup>

『설문해자』에 ‘免’자가 없으나 ‘免’을 부건으로 취하는 글자가 있으므로 단옥재가 이와 같이 말한 것이다.

『설문해자』에는 ‘子’가 결구된 ‘旣’가 ‘해산하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媿’자는 보이지 않는다. ‘媿’은 『禮記·內則』에 “여자는 열 살이 되도록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여자스승이 얹전하게 행동하고 이르는 대로 잘 들어 좇아야 함을 가르친다.(女子十年不出, 姆教媿媿聽從。)”<sup>84)</sup>라고 하였는데, ‘媿媿’이란 ‘유순하고 얹전하다.’라는 말이고, ‘媿’은 ‘순하다.’라는 뜻이다. 『玉篇』에도 ‘媿’을 “유순하다. 아름답다.(媿媿也。媚好也。)”<sup>85)</sup>라고 하였다.

‘旣’은 아기를 뜻하는 ‘子’와 면한다는 뜻의 ‘免’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아이가 모체에서 벗어났다는 뜻에서 ‘해산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현재는 편방이 ‘女’로 대체된 ‘媿’이 그 뜻을 대신하여 쓰이고 있는데, 아기를

82) 許慎 撰, 『說文解字』, 中華書局出版, 1994, p.310.

83) 段玉裁, 『說文解字注』, 上海古籍出版社, 1981, p.741.

84) 李民樹 譯解, 『禮記 中』(四書五經 8), 三星文化社, 1985, p.160.

85) 顧野王, 『大廣益會玉篇』, 中華書局, 1987, p.17.

낳는 주체가 여성이므로 ‘子’보다는 ‘女’를 편방으로 한 글자가 ‘해산하다.’라는 의미와 더 부합되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免’<sup>86)</sup>이 해산을 하고 있는 여성의 몸을 상형한 글자로 추정되므로 편방에 어떤 글자가 쓰이던 상관 없이 ‘해산하다.’라는 뜻을 나타내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

(2) 媿(媿)의 字形演變

<字形表>

字體 字形	甲骨文	金文	小篆	隸書 <sup>87)</sup>		楷書
				古隸	今隸	
字形	不見	不見	 (媿)	不見	不見	媿, 媿
出典			說文解字			

媿의 갑골문과 금문은 보이지 않는다. 媿은 아이를 상형한 ‘子’와 면한다는 뜻의 ‘免’이 결구되어 있다. 免의 갑골문과 금문은 보이지 않고, 『說文解字』에도 보이지 않으므로 소전 또한 찾을 수 없다. 그러나 媿의 부견으로 𠄎으로 자형을 유추할 수 있다. 고예는 𠄎(睡虎地簡 24.18), 𠄎(老子甲 53)과 같이 썼고, 금예는 免(武氏左石室畫象)<sup>88)</sup>로 썼다. 소전에서 예서까지 免의 연변과정을 살펴보면, 頭部는 ㄣ → ㄣ로 腹部는 ㄣ → ㄣ로 하체는 ㄣ → ㄣ로 연변되었는데, 曲直의 차이만 있을 뿐 변화가 크지 않다. ㄣ → ㄣ는 둥그렇게 부푼 腹部이며, 그 하단이 트여 있으므로 해산을 하는 여성의 사타구니를 나타낸 모양일 것이다. ㄣ는 다리를 상형한

86) 顧野王, 『大廣益會玉篇』, 中華書局, 1987, p.17. : “免은 ‘버리다, 그치다, 벗어나다.’이다.(免, 去也, 止也, 脫也.)”: 民衆書林編輯局 編, 『漢韓大字典』, 2001, 2판, p.240, 免자조 : 아기를 낳은 사람의 사타구니의 상형으로, ‘아이를 낳다’의 뜻을 나타냄. ‘媿’의 原字로 아기가 빠져 나오는 모양에서 어떤 상태를 ‘벗어나다’의 뜻을 나타냄.

87) 漢語大字典字形組編, 『秦漢魏晉篆隸字形表』, 四川辭書出版社, 1985, p.404.

88) 漢語大字典字形組編, 『秦漢魏晉篆隸字形表』, 四川辭書出版社, 1985, p.577.

것이므로 𠂔는 출산을 하고 있는 여성의 하체를 상형한 글자로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아이를 해산하는 모습을 표현한 글자로 보이므로 ‘해산하다’라는 뜻의 媿(媿)에 義符로 작용하는 것이다.

### 3. 養育

이 세상 모든 생명은 잉태와 출생의 과정을 거쳐 탄생하게 되면, 양육의 주체는 그 대상이 되는 생명체가 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을 한다. 자식을 양육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한자는 育과 養이 있는데, 다음에서는 이 두 글자의 자원과 자형연변에 대해 알아보겠다.

#### 1) 育(기를 육)

##### (1) 育의 字源

許慎은 育의 字源에 대해 『설문해자·女部』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育은 자식을 착하게 기르는 것이다. 女를 따르고 肉가 소리를 나타낸다. 반절은 余六切(육)이다. 『虞書』에 자식을 가르치고 기르는 것이라고 했다. 서게는 ‘순종하지 않는 자식이다. 순종하지 않는 자식 또한 가르쳐야 한다. 하물며 순한 자식이어서야.’라고 하였다. 𠂔은 育으로 혹 毒를 따르기도 한다.(育, 養子使作善也. 从女, 肉聲. 虞書曰“教育子.” 徐鍇曰“女, 不順子也. 不順子亦教之, 况順者乎.” 余六切. 𠂔 育或从毒.)<sup>89)</sup>

허신은 ‘育’에 대해 ‘자식을 착하게 기르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단옥재는 “맹자가 이르기를 ‘중용을 실천하는 자는 중용하지 않는 자를 길러주며, 재주가 있는 자는 재주가 없는 자를 길러준다.’라고 하였다.子を 따르지 않고 거꾸로 된 子(女)을 따른 것은 바로 착하지 않은 자를 착하게 만

89) 許慎 撰, 『說文解字』, 中華書局出版, 1994, p.310.

든다는 것을 이른다.(孟子曰 中也養不中. 才也養不才. 不從子而從倒子者, 正謂不善者可使作善也.)”90)라고 하였다.

허신이 ‘育’을 ‘毓’으로 쓰기도 한다고 하였는데, 王國維도 『古文字詁林』에서 “毓, 이 글자는 곧 『說文』 育자의 혹체 毓자이다. 毓은 每(즉 母字)를 따르고, 沝(즉 子를 거꾸로 쓴 것)를 따랐는데, 이것과 바로 같다. 毓, 𠄎로 쓰기도 하는데, 肉과 子를 따른 글자로 育의 초문이다.(毓, 此字即說文育字之或體毓字. 毓從每(即母字) 從沝(即到子). 與此正同. 其昨毓𠄎者. 從肉從子. 即育之初字.)”91)라고 하였다.

‘育’은 아기가 태어나는 모습을 상형한 글자이다. 育의 이체자인 ‘毓’은 아기를 낳는 어머니를 나타낸 ‘每(母)’와 머리를 거꾸로 하고, 양수와 함께 태어나는 아기의 모습을 나타낸 ‘沝’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아기를 낳는 뜻이 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글자이다. 따라서 ‘育’의 본의는 ‘아기를 낳다.’가 되나 인신하여 ‘기르다.’, ‘가르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 글자이다.92)

(2) 育의 字形演變

<字形表>

字體 字形	甲骨文 <sup>93)</sup>		金文 <sup>94)</sup>			小篆	隸書 <sup>95)</sup>		楷書
	古	𠄎	𠄎	𠄎	𠄎		古隸	今隸	
字形	(a) 𠄎	(b) 𠄎	(a) 𠄎	(b) 𠄎	(c) 𠄎	育	不見	育 育	
出典	甲414	甲818	毓且丁 貞	呂仲爵	牆盤	說文解 字		曹全碑	

90) 段玉裁, 『說文解字注』, 上海古籍出版社, 1981, p.744.  
 91) 古文字詁林編纂委員會 編纂, 『古文字詁林』, 第10冊, 上海教育出版社, 2004, p.1104.  
 92) ‘育’은 자형 상으로는 ‘탄생’에 해당되나 뜻이 ‘기르다’이므로 ‘양육’편에 배치하였다.  
 93)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編輯, 『甲骨文編』, 中華書局影印, 1964, p.557.

育의 갑골문은 여성이 아이를 출산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㉑의 상부 𠂇는 女이고, 하부의 𠂇는子を 뒤집어 놓은 모양으로 𠂇는 아이의 머리, 𠂇는 양팔과 몸을 본 뜬 것이다. ㉒자형에서는 女를 𠂇로, 태어나고 있는 아기는 𠂇로 썼다. 하단 𠂇는 아이를 출산할 때 흐르는 양수를 나타낸 것이다. 아기가 태어날 때 머리부터 나오기 때문에 子を 뒤집어 놓은 모양으로 써서 𠂇의 자형이 되었다.

소전에서는 태어나고 있는 아이의 자형이 상단으로 올라가고, 여성의 몸은 肉(月)로 대체되어 하단에 위치한 형태로 연변되었다. 금문에서 소전으로의 변화는 매우 심하여 이들 글자가 같은 글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인체와 유관한 글자에 肉(月)을 편방으로 쓴 글자가 많이 보이는데, 育도 그러한 영향으로 인해 마땅히 女 혹은 母의 자형을 취해야 할 것을 肉(月)으로 대체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 2) 養(기를 양)

### (1) 養의 字源

許慎은 養의 字源에 대해 『說文解字·食部』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養은 ‘어른께 음식을 드리다.’이다. 食을 따르고 羊이 소리를 나타낸다. 반절은 余兩切(양)이다.(養, 供養也. 从食羊聲. 𠂇 古文養. 余兩切.)<sup>96)</sup>

허신은 ‘養’의 본의를 ‘어른께 음식을 드리다.’라고 하였다. 단옥재는 ‘養’의 뜻에 대해 “지금 사람들은 상성과 거성을 구별한다. 옛날에는 이러한 것이 없었다.(今人分別上去. 古無是也.)”<sup>97)</sup>라고 하였다. 『廣韻養韻』에 ‘養’

94) 容庚 編著, 『金文編』, 中華書局, 1992, p.989.

95) 漢語大字典字形組編, 『秦漢魏晉篆隸字形表』, 四川辭書出版社, 1985, p.1060.

96) 許慎 撰, 『說文解字』, 中華書局出版, 1994, p.107.

97) 段玉裁, 『說文解字注』, 上海古籍出版社, 1981, p.220.

은 上聲으로는 “기르다. 즐겁다. 꾸미다.(育也. 樂也. 飾也.)”이고, 『廣韻·漾韻』에 去聲으로는 “어른께 음식을 드리다.(供養.)”<sup>98)</sup>로 되어 있다. 『玉篇』에는 “기르다. 지키다. 즐기다. 모으다. 자라다.(育也. 守也. 樂也. 畜也. 長也.)”<sup>99)</sup>라고 하였다.

董璠은 『反訓纂例』에서 養을 異讀反訓의 예로 말하면서 “지금의 사람들은 上聲과 去聲으로 구분하여 나누지만 옛날에는 없었다.(今人分別上去. 古無是也.)”<sup>100)</sup>라고 段玉裁의 注를 인용하면서 두 가지의 音<sup>101)</sup>이 나오게 된 것이 後世의 일이며 ‘經籍의 옛날 音이 異讀되는 사실은 없음을 알 수 있지만, 그렇다고 音의 輕重까지 반드시 없었던 것은 아니니, 音讀에 淸濁이 조금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는 破讀의 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sup>102)</sup> 養이 상성인 ‘餘兩切’로 발음되는 경우 ‘기르다’의 의미로 쓰이고, 거성인 ‘餘亮切’로 발음된 경우 ‘奉養이나 供養’의 의미로 분류하였다.

『禮記·檀弓下』에서는 “반곡하고 당에 오르는 것은 그 다른 행사를 하던 곳에 돌아오는 것이요, 주부가 방에 들어가는 것은 그 봉양하던 곳에 돌아가는 것이다.(反哭升堂, 反諸其所作也. 主婦入于室, 反諸其所養也.)”<sup>103)</sup>라고 하여 ‘養’이 ‘봉양하다’라는 뜻으로 쓰였다.

養의 본의는 가축을 먹여 기르는 것이다. 養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들의 예는 奉養(부모나 조부모를 받들어 모심), 扶養(자활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 기름), 畜養(가축을 기름) 등 그 구분이 명확하며 이러한 辭例들로 養이 尊卑에 따라 각각 쓰임을 다르게 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sup>104)</sup>

98) 根据張氏澤存堂本影印, 『宋本廣韻』, 北京市中國書店, 1982, p.290.

99) 顧野王, 『大廣益會玉篇』, 中華書局, 1987, p.46.

100) 段玉裁, 『說文解字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8, p.220.

101) 현재 상용되고 있는 자전에 ‘餘兩切’과 ‘餘亮切’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두 음 사이에 反切과 上聲·去聲의 차이만 있을 뿐, 疊韻·雙聲으로 同音이다.

102) 徐世榮 編著, 『古漢語反訓集釋』, 安徽教育出版社, 1989, p.47 재인용. : “經籍舊音無異讀可知 然亦未必遂無輕重 音讀小有淸濁 卽是破讀之法矣.”

103) 李民樹 譯解, 『禮記 上』(四書五經 7), 三星文化社, 1985, p.207.

104) 崔周喜, 「反訓의 漢語文字學的 考察-經典에 보이는 反訓을 中心으로」, 공주대

## (2) 養의 字形演變

&lt;字形表&gt;

字體 字形	甲骨文	金文 <sup>105)</sup>	小篆	隸書 <sup>106)</sup>				楷書
				古隸		今隸		
字形								
出典	乙409	敕又壘	說文解字	睡虎地簡 13.72	老子乙前 19上	曹全碑	武威醫簡 15	

養은 小篆을 기점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甲骨文과 金文은 養의 고문자인 敕, 𠄎과 같다. 손에 채찍 같은 몽둥이를 든 모양과 羊의 모양을 상형을 한 것이다. 敕은 牧과 나누어 쓰였으나, 점차 敕이 牧에 흡수되어 지금은 쓰이지 않는다.

金文이후 小篆부터는 許慎이 말한 구성대로 食과 羊이 합해진 모양이다. 이 구성은 養이 처음 羊을 치는 일을 뜻하던 자형에서 확대 認識되어 羊(가축)에게 먹이를 먹이는 일로써 食(먹이다 사)와 羊을 결합해 놓은 형태로 발전해 나간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갑골문의 모양을 보면 채찍으로 보이는 몽둥이를 든 손과 羊을 상형한 모양으로 양을 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𠄎은 養의 古文이다<sup>107)</sup>. 𠄎은 敕으로 隸定한다. 于省吾는 “양을 치는 것을 敕, 소를 치는 것을 牧(牧羊爲 敕 牧牛爲 牧)”<sup>108)</sup>이라고 하면서 양과 소를 치는 것을 분리하였다. 偏旁인 攴의 邊에 딸린 갑골도 양(𠄎, 𠄎)과 소(𠄎)를 엄격히 다르게 하였다. 따라서

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3, pp.57-60, ‘養’자조 자원분석을 발췌, 요약, 수정하여 인용한 내용임.

105) 方述鑫 等編, 『甲骨金文字典』, 巴蜀書社, 1993, p.388 養의 갑골문, 금문 채록.

106) 漢語大字典字形組編, 『秦漢魏晉篆隸字形表』, 四川辭書出版社, 1985, p.333.

107) 方述鑫 等編, 『甲骨金文字典』, 巴蜀書社, 1993, p.388 참조.

108) 于省吾 主編 姚孝遂 「按語」編撰, 『甲骨文字詁林』(全四冊), 中華書局, 1996, pp.1545-1546.

養은 그 고문에 의해 ‘양을 친다.’는 뜻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허신이 정의한 ‘供養’은 漢末期의 일로, 아직 甲骨文이 발견되기 훨씬 전에 생긴 오류라고 할 수 있다. 養의 本義는 갑골문으로 볼 수 있듯이 羊과 같은 가축을 기르는 것이다.<sup>109)</sup>

### Ⅲ. 結論

古代에는 誕生說話가 많았는데, 그 중 姜嫄이 들에 나갔다가 거인의 발자국을 밟고 잉태하여 1년이 지나자 아들을 낳았다는 周나라 始祖 后稷의 탄생설화는 유명하다. 우리나라도 고구려의 주몽,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와 네 번째 왕인 탈해왕은 모두 알에서 태어났다는 탄생설화가 있다. 이는 신비한 탄생설화를 믿게 함으로서 나라의 시조를 신성한 존재로 여겨 백성들이 따르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겠지만 유독 탄생에 대해서만 설화가 있는 것으로 보아 생명의 잉태와 탄생을 매우 신성하고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어린 생명의 잉태, 출산, 양육은 형태와 방법이 다를 뿐 모든 생물체가 자신의 종족을 번식하고 보존하기 위해 공통으로 겪는 소중한 과정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관한 민간요법, 금기 등을 우리 후손들은 집안 어른들에게서 직접 전해 받거나 혹은 대대로 내려오는 기록을 통해 답습해 왔으므로 현대의 후손들이 직접·간접적으로 과거의 풍습이나 문물을 접할 수 있는 것이다. 후손들이 접할 수 있는 과거의 풍습은 口傳이나 記錄뿐만 아니라 漢字에서도 찾을 수 있다. 앞서 말했듯이 한자는 표의문자이기 때문에 한자의 자원을 분석함으로써 과거의 풍습 및 생활상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109) 崔周喜, 「反訓의 漢語文字學的 考察-經典에 보이는 反訓을 中心으로」, 공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3, p.58-59, ‘養’자조 자형연변 인용.

본고에서는 出生과 관련된 漢字를 선정하여 字源과 字形演變을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여러 典籍에 나타난 출생과 관련된 한자 자원의 活用事例 및 出典의 考證을 통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한자의 本意를 알아보고, 變形 과정을 분석하여 한자의 구조를 파악하여 意味 변화를 연구하였다.

본고에서는 ‘胎妊, 誕生, 養育’의 순으로 서술하면서 각 항에 해당하는 한자의 자원분석을 통해서 본의 및 引伸意를 알아보고, 한자의 구조와 변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갑골문부터 해서까지 자형의 연변과정을 분석하였다.

먼저 ‘胎妊’편에서는 身, 孕, 胎, 始, 包, 胞, 胚의 자원과 자형연변 과정을 알아보았다. 다음, ‘出產’편에서는 產, 了, 娩에 대해 알아보았고, ‘養育’편에서는 育, 養의 자원과 자형연변을 살펴보았다. 그 중 ‘胎妊’편의 身은 임신한 여성의 몸을 상형한 글자이고, 孕과 包는 복중의 아이를 표현한 글자이다. 段玉裁는 ‘胚’자조에서 『文子』와 『淮南子』를 인용하여 服中の 태아가 성장하는 과정을 월별로 설명하였다. 또 ‘包’자는 본래 복중의 아이가 胎褌에 싸여 있다는 뜻이었으나 지금은 모든 물건을 감싼다는 뜻으로 의미가 확장되어 사용된다. ‘出產’, ‘養育’에 관한 한자에 비해 ‘胎妊’ 즉 孕胎에 관한 한자는 글자의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의미에 대한 설명도 비교적 자세하다. 잉태는 생명의 시작이며,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에 복중의 태아를 잘 보호하는 것은 자손을 順산하여 가문을 보존하는 근본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出產’편 ‘產’은 초목이 땅에서 돋아나는 것을 나타낸 글자였으나 사람이나 동물 등 생명이 태어나는 모든 것을 나타내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 ‘養育’편 ‘育’자의 甲骨文과 金文은 아이를 출산하는 모습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표현하였는데, 몇 개의 선으로 출산과정을 적나라하게 나타낸 고대인들의 표현 방법이 매우 감탄스럽다.

이상으로 出生에 관한 漢字의 字源을 分析하고, 자형의 연변과정을 알아보았다. 그 과정을 통해 한자의 本義를 밝히고, 引伸義를 알아내는 것 외에 잉태를 바라고 順산을 염원하는 뜻은 비록 오래 전의 일이라 해도 지금의 바람과 다름이 없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參考 文獻〉

- 古文字詁林編纂委員會 編纂, 『古文字詁林』, 第2冊, 上海教育出版社, 2000.
- 古文字詁林編纂委員會 編纂, 『古文字詁林』, 第7冊, 上海教育出版社, 2002.
- 古文字詁林編纂委員會 編纂, 『古文字詁林』, 第8冊, 上海教育出版社, 2003.
- 古文字詁林編纂委員會 編纂, 『古文字詁林』, 第9冊, 上海教育出版社, 2004.
- 古文字詁林編纂委員會 編纂, 『古文字詁林』, 第10冊, 上海教育出版社, 2004.
- 許慎 撰(1994), 『說文解字』, 中華書局出版.
- 顧野王, 『大廣益會玉篇』, 中華書局, 1987.
- 郭錫良, 『漢字古音手冊』, 北京大學出版社, 1986.
- 根据張氏澤存堂本影印, 『宋本廣韻』, 北京市中國書店, 1982.
- 段玉裁, 『說文解字注』, 上海古籍出版社, 1981.
- 方述鑫, 林小安, 常正光, 彭裕商 編著, 『甲骨金文字典』, 巴蜀書社, 1993.
- 王力, 『同源字典』, 商務印書館, 1991.
- 容庚 編著, 『金文編』, 中華書局, 1992.
- 于省吾 主編, 『甲骨文字詁林』(全四冊), 中華書局, 1996.
-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編輯, 『甲骨文編』, 中華書局影印, 1964.
- 漢語大字典字形組編, 『秦漢魏晉篆隸字形表』, 四川辭書出版社, 1985.
- 漢語大辭典編纂處 整理, 『康熙字典』, 上海辭書出版社, 2007.
- 顏師古 註釋, 梁曉星 編譯, 『史游 急就章』, 박이정, 2008.
- 金冠植 譯解, 『書經』(四書五經 4), 三星文化社, 1985.
- 朴一峰 譯著, 『莊子 雜篇』, 도서출판 육문사, 2003.
- 成百曉 譯註, 『論語集註』, 전통문화연구회, 1990.
- 成百曉 譯註, 『詩經集傳 상』, 전통문화연구회, 1996.
- 成百曉 譯註, 『詩經集傳 下』, 전통문화연구회, 1996.
- 顏師古 註釋, 梁曉星 編譯, 『史游 急就章』, 도서출판 박이정, 2008.
- 梁東淑, 『甲骨文字典을 겸한 甲骨文解讀』, 일간 서예문화, 2005.
- 李民樹 譯解, 『禮記 上』(四書五經 8), 三星文化社, 1985.

李民樹 譯解, 『禮記 中』(四書五經 8), 三星文化社, 1985.

李民樹 譯解, 『禮記 下』(四書五經 9), 三星文化社, 1985.

이준영 해역, 『주역』, 자유문고, 2002.

이준영 해역, 『주례』, 자유문고, 2002.

崔亨柱, 李俊寧 編著, 『爾雅注疏』, 자유문고, 2001.

崔周喜, 「反訓의 漢語文字學的 考察—經典에 보이는 反訓을 中心으로」,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民衆書林編輯局 編, 『漢韓大字典』(2판), 民衆書林, 2001.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在綫字典, [www.51240.com](http://www.51240.com)

## Abstract

### *A Study on Chinese Characters Related to the 'Birth' Theme*

Woo, Onsik\*

This essay is an analysis of the resources of Chinese characters related to the 'birth' theme.

Birth is a phenomenon in which a fetus fully emerges from its mother and forms an independent organism. Human birth is a vital art of reserving the species, inheriting the family business and connecting the family. In our country, marriage was regarded as a means of giving birth to children, so women who married thought giving birth to children was the biggest duty and desire. This was what the whole family wanted, not just the person directly involved. In particular, in the Joseon Dynasty, where it was an important filial duty to get a heir to a family, it was believed that only the birth of a son would serve the duty of future generations.

In a traditional society, where were very busy with small and large rites, people within the family tried to take care of mothers before and after pregnancy and to promote the health of mothers and children when they gave birth to babies. Also, when a child was born, they kept 'Gumjul' at the gate to prevent the vendors and the Mourners from coming in and out of the house from entering the wrong place.

Since the birth of the first human race, the modern human race has evolved to become highly spiritual. As humans naturally formed a society while living in groups for survival, they developed an original language t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Chinese characters related to birth may also have been for the need for communication and records.

This study's purpose is the customs and ideas of ancient birth by analyzing the origin of Chinese characters that have been handed down for thousands of years.

**【Key words】** Pregnancy, Birth, Breeding, Child Birth, Gumjul

투고일 : 11월 11일, 심사완료일 : 12월 1일, 게재확정일 : 12월 4일

\* President, Noh-dut-dol Educational Institute / kkongcho2003@hanmail.net

